

중기중앙회장 선거 D-10, 후보자 공약 키워드는

최저임금·동반성장·조합발전·일자리·4차혁명

(이재한)

(김기문)

(주대철)

(이재광)

(원재희)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 26대 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5명의 후보자들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지난 12일 대구, 15일 전주에서 각각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중기 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장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다.

특히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선 최대 접전지역인 서울·수도권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출입기자단이 주최하는 공개토론회가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어 28일 선거를 앞두고 접전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17일 중기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기호 1번),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기호 2번),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기호 3번),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기호 4번), 원재희 프림파스트 대표(기호 5번)가 후보자로 나섰다.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한 후보는 '강한 조합, 역동적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젊다는 점과 대정부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동결(업종·규모별 차등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 등 '7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조합 이익을 옹호하겠다고 선거공고물에 각 조합별 현안과제도 제시해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주요 공약

기호 1번 이재한 후보	기호 2번 김기문 후보	기호 3번 주대철 후보	기호 4번 이재광 후보	기호 5번 원재희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1년으로 회장 직속 조합민원실 설치 및 중기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부서 신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활력회 특별위원회' 설치 해외수출지원 전용 온라인 프리마켓 판로 플랫폼 구축 정부 주도 남북경협에 중소기업 의무할당제 도입(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소기업 4차산업위원회' 설치 및 산업 연수생 제도 부활 지역 중소기업 회장에 도입해 위상 강화 및 중기중앙회 참여 공식화 수익계약 2억원으로 상향·중기간 경쟁품목 확대·경기지방조달청 설립 건설하청 등 단순제조업 카르텔 허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수의계약제도 합리적 부활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 협동조합 플랫폼비즈니스구축지원금 조성 등 통한 판로 확보 중소기업 대학, 대학원(석·박사 과정) 설립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담은행 설립 및 협동조합 물류유통혁신센터 건립 국제청과 중기중앙회간 '세정위원회' 설치 제2·3개성공단 조성 및 남북경협위원회에 중소기업 참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 쇼핑몰 구축,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금 1000억원 조성 산업은행 기능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북한 내수시장 판매 전용 제품 생산 산업단지 조성 조달품목, 대기업 납품단가 등에 업종·품목별 표준원가제정하는 '표준원가센터' 설립 스마트팩토리 범위 비제조업까지 확장

진해마천주물공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기문 후보는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당당한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8년간 회장을 역임한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두 차례 중기중앙회장을 맡으면서 중앙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등 '3불 정책'을 이슈화하는 등 동반성장 정책을 이끌어냈으며 '8년의 르네상스' 시절을 일일이 거론했다. 김 후보는 '당당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 등을 내놓았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주대철 후보는 '협동조합

의 플랫폼비즈니스 시대를 열겠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분야에 정통한 '실무능력'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주 후보는 지난 두 차례의 지방 토론회에서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부인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쓸데없이 사진이나 찍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사이다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 후보는 15년간 한결같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동조합의 결을 지켰다면서 개별 조합 관련 공약들도 두루 내놓았다.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광 후보는 '말보다 행동으로 절박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평사원

에서 출발해 기업 회장이 된 경륜과 리더십을 겸비한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다면서 중소기업 일거리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이 후보는 적정 납품단가 보장,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적정 보상체계 마련, 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등을 통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원재희 후보는 '중소기

업중앙회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조달, 생산, 유통, 서비스 및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해 지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겠다고 제시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8일 중기중앙회 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한다. 회장 임기는 4년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

55곳 추가 운영... 내달까지 모집

정부가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올해 55곳 추가로 만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주관기관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와 갖춘 창작활동·창업지원 공간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국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중기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할 계

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 지역과 낙후 지역에 5개소 내외가 들어선다.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관에는 사업비의 70%(일반형 80%) 이내에서 인테리어,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비용을 전문형 30억원, 일반형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 지방 중심으로 확산하고 부처 간 협력과 주관기관 간 교류를 강화해 공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5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설명회를 각각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中 정수기·비데 시장 추가 공략

주방욕실 전문업체 조무와 MOU 시간과 비용 절감·사업 경쟁력 강화

코웨이가 중국 정수기·비데 시장의 추가 공략에 들어간다.

코웨이는 중국 주방욕실 전문업체인 조무(JOMOO)와 상호 전략적 제휴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본격적인 전략적 제휴를 맺기에 앞서 사전 MOU를 진행한 것이다.

코웨이와 손잡은 JOMOO는 중국의 주방·욕실 브랜드 기업으로 9년 연속으로 현지 욕실 제품 판매 1위, 2018년 광군제 기간 동안 약 8억 위안(약 1360억원)어치를 판매하며 스마트 비데와 욕실 제품 카테고리 판매 1위 등 업계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뛰어난 연구개발과 제조 능력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서비스 센터도 보유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가운데)가 이지훈 코웨이 글로벌사업부부장(오른쪽), 린샤오웨이 조무(JOMOO) 유럽미주센터본부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하고 있다.

이번 제휴 논의는 국내에서 선도적 환경 가전 기술을 보유한 코웨이와 중국 내 대규모의 주방, 욕실 제품의 제조, 유통 및 서비스 인프라를 갖춘 JOMOO가 만난 것이다.

코웨이는 JOMOO와의 제휴가 최종성사되면 중국 시장에 적합한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 개발과 유통 및 서비스 구축 등

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중국 내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수기 시장은 지난해의 경우 317억 위안(약 5조2000억원) 수준으로 연 평균 15~20%씩 성장하는 등 잠재 성장률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매일 10돈 '황금돼지' 쏜다!"

'2019 운수대통 특집전' 시작

홈쇼핑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경품 등을 제공하는 '2019 운수대통 특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은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명씩 추첨해 황금돼지 37.5g(10돈)을 증정한다. 또 특집전 기간 ▲건강·다이어트 ▲가전 ▲생활·인테리어 분야 제품 구입자들에게 다양한 경품 및 할인 적

립 프로모션도 펼친다.

우선 건강·다이어트 특집에선 오는 28일까지 행사 기간 관련 상품 구매고객을 추첨해 총 30명에게 각 100만 원의 적립금을 준다. 17일에 진행된 빨강석류즙, 유산균이야기를 비롯해 23일 국민비타민D 방송 등을 통해서다. 24일 진행되는 생활·인테리어 특집에선 상품 구매 고객에게 삼성카드 7%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벤트리 원목아일랜드식탁, 이누스 욕실시공 등을 행사 기간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여성벤처協, 창업 돕는 '케어 프로그램' 실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벤처창업 케어(car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년차를 맞는 프로그램은 지원자 가운데 30명 정도를 최종 선정해 선배 여성벤처 CEO로부터 체계적으로 지도를 받아 창업을 돕는다.

지난해까지 관련 과정을 끝낸 예비창

업자 114명 중에는 95명이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창업 3년차 생존률은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모습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창업캠프(1개월)→선배CEO코칭(3개월)→사업화과제 해결자금 지원(500만원)의 3단계로 구성된다.

협회는 우선 지원자 중 60명을 1차 선발해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비

즈플랜 경진대회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자 3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조, 정보기술(IT), 지식서비스 등 업종별로 구성된 여성벤처 선배CEO와 1대1 매칭을 통해 3개월간 밀착코칭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전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선 사업화과제 해결자금으로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에 맞춰 특허출원, 시제품 프로토타입 개발 등을 통해 창업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승호 기자